

# “추석 황금연휴, 광양에서 취향 따라 즐기세요”

가족·연인·친구 맞춤 코스 풍성  
백운산 둘레길·섬 정원 등 눈길  
달맞이 명소·문화예술 공간도

광양시가 추석 명절 황금연휴를 맞아 가족·연인·친구와 즐길 수 있는 여행 코스를 선보였다. 30일 광양시에 따르면 백운산의 울창한 원시림, 섬진강이 바다와 만나는 포구, 탁 트인 광양만 등 풍부한 역사와 인문, 먹거리를 갖춘 광양은 여행 테마별로 색다른 매력을 제공한다. 일 년 중 달이 가장 크고 밝다는 한가위에는 망덕포구, 배알도 섬 정원, 삼화섬과 달빛해변, 마로산성 등 로맨틱한 달맞이 명소가 인기다. 망덕포구와 배알도 섬 정원은 섬진강과 바다가 어우러진 풍광 속에서 일몰과 월출을 동시

에 감상할 수 있고, 삼화섬과 달빛해변에서는 이순신대교와 무지개다리, 해오름육교를 배경으로 광양만에 떠오르는 보름달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마로산성 역사 망루와 우물터, 명문 기와 등이 은은한 정취와 함께 보름달을 품은 야경을 선사한다. 날씨와 관계없이 품격 있는 연휴를 보내고 싶다면 미술관 투어가 제격이다. 전남도립미술관에서는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4주년 기념전 'BLACK & BLACK'과 국립중앙박물관 순회전 '마나 모아나-신성한 바다의 예술, 오세아니아'전을 만날 수 있다. 윤두서, 이우환 등 국내외 거장 20여명이 참여한 BLACK & BLACK전은 '검정'이라는 공통언어로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예술적 교감을 보여준다.



▲광양예술창고  
▲백운산자연휴양림 (광양시 제공)



미술관을 나와 인서리 아트 로드를 걸으면 14채 한옥을 리뉴얼한 인서리공원이 반긴다. 갤러리 '반창고'에서는 박하나 작가의 개인전 '산'이

된다면 가벼운 트레킹 코스가 해마다 있다. 해발 1천222m 백운산을 품은 백운산 둘레길과 백운산 자연휴양림은 피톤치드 가득한 숲길에서 명절 피로를 풀기 좋다. 옥룡사 동백나무숲은 옥룡사지와 고목이 어우러져 독특한 정취를 풍기며, 배알도 섬 정원은 섬진강이 바다와 만나는 낭만적인 섬으로 해상 보도교를 통해 걸어 들어갈 수 있다. 운동주의 친필유고가 보존된 정병욱 가옥과 윤동주 시 정원이 있는 망덕포구 역시 가을 감성을 채우며 걷기 좋은 장소다. 이현주 광양시 관광과장은 “광양은 백운산 둘레길, 섬 정원, 포구 등 걷기 좋은 로드와 문화예술 공간이 풍부하다”며 “올 추석 황금연휴에는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광양 여행을 즐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 고흥 녹동항서 추석맞이 드론·불꽃쇼 열린다

오는 4·6·7일...전통놀이 체험도

고흥군이 추석 연휴 기간 녹동항에서 대규모 해상 불꽃쇼를 연다. 30일 고흥군에 따르면 다음 달 4·6·7일 사흘간 녹동항 바다정원 일원에서 드론쇼 및 해상불꽃쇼를 개최한다. (사진) 이번 행사는 ▲10월4일 '달빛미술관(민화편) ▲10월6일 '달토끼와 함께하는 추석' ▲10월7일 '고흥, 가을나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제기, 굴렁쇠, 투호 등 전통놀이 체험 공간을 마련해 녹동항 방문객들이 명절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10월6일 추석 당일에는 1천500대 규모의 드론에 불꽃을 부착한 불꽃드론쇼를 선보여 공연의 질을 높이고, 군민과 귀성·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의 가을밤을 선물할 계획이다. 또한 추석 연휴 특별공원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지역 사회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행사 준비



를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공영민 군수는 “추석 연휴를 맞아 고흥을 찾는 방문객을 위해 특별한 드론쇼와 해상불꽃쇼,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했다”며 “새롭게 변화하는 고흥의 매력을 느끼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23년부터 열린 고흥군 녹동항 드론쇼는 누적 관광객 51만여명을 기록하고 439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녹동항 드론쇼는 오는 10월25일 폐막식을 앞두고 있으며, 강우·강풍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다. /박현진 기자

## 장성군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공모 선정

장성군은 30일 “농림축산식품부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 공모사업'에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국비 2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군은 삼계면 함동저수지 인근 임대형 스마트 팜 단지에 땅의 열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지열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열 시스템이 들어가는 임대형 스마트팜은 장성군이 지난해 선정된 30억원 규모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되는 농업 시설이다. 장성 레몬, 아열대 채소 재배를 중심으로 청년 농업의 성장과 단지화를 추진한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외에도 내륙지방 아열

대작물 재배 연구·실증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농촌진흥청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도 삼계면에 건립 중이다. 2026년 무렵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시설원에 분야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체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저탄소 친환경·아열대작물·청년 농업 3요소를 고루 갖춰 미래 농산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 화순군 '분·배전반 교체·소화용구' 지원

안전취약층 대상...화재 선제 대응

화순군이 안전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화재예방을 위해 분·배전반(사진) 교체 및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30일 화순군에 따르면 전체 화재의 25%가 분·배전반 등에서 발생하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3월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화순군은 독거 노인들 거주 비율이 높아 화재가 나면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선제적 화재 진압이 절실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는 분전반, 배전반 등에 설치해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소화약제가 방출돼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용구다. 주택 내 전기선이 밀집한 배전반 등 좁은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전기화재를 초기에 진화해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소공간용 소화용구만을 설치하는데 그치지 않고 분·배전반과 차단기가 없는 주택 등을 담당 공무원이 선제해 분·배전반과 차단기까지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인근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양면에 거주하는 민연남(65)씨는 “장마철만 되면 차단기가 떨어지듯 강제로 울리고 사용했는데 이젠 그런 걱정이 없어졌다”며 “집안에 스위치가 고장이 나서 불을 못 키고 있었는데 스위치까지 고쳐줘 밤에도 환하게 살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양오남(90세)씨는 “노인들을 위해 작은 마을까지 찾아와 설치해줘서 고맙다”고 전했다. 조세현 화순군의원은 “화재를 100% 막을 수는 없으나 줄일 수는 있고 피해 확산을 막을 수가 있다”며 “현장에서 군민이 필요한 부분에 더욱 신경쓰고 군민들의 안전 관련 사업은 확대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여수시,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여수시는 30일 “다음 달 15일까지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와 10월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로 인한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연장 대상은 ▲재산세(토지·주택 27만)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 등 납부가 도래하는 모든 정기분 지방세이며,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5일 사이에 신고 또는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세목은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현재 지방세 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지만, 스마트워क्स(모바일) 이용이 제한돼 있어 신고·납부는 워텍스(PC)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다만 취득세(유상거래)는 일부 시스템 연계 문제로 워텍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고 관련 서류를 지참해 여수시 세정 과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납세 편의를 위해 적극 안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 장흥군, 제14회 장평 명품 호도축제 개최

오늘부터 이틀 간...행사 다채

장흥군은 “다음 달 2일까지 장평체육공원 및 다목적회관 일원에서 제14회 장평 명품 호도축제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14회를 맞는 호도축제는 손지압용으로 사용하는 장평명 호도를 널리 알리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축제로 기획됐다. 명품호도는 손지압용으로 사용돼 호도를 손으로 굴리면 지압효과가 있어 피로회복 및 스트레스 해소 등 혈액순환에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올해는 풍물놀이, 노래자랑, 사물놀이, 명품 호도 시상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 장평명 명품호도전시관에서는 호도 전시·판매장을 별도로 마련해 지역 명품 호도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관람 후에는 명품호도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다. 백종민 축제추진위원장은 “이번 축제는 장평명 특산품인 호도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신바람 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욱 기자

## 안전한 추석...담양군 명절 종합대책 추진

11개 반 210명 대책반 운영

담양군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군민과 귀성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30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재난·안전관리 강화 ▲민원 불만 해소 및 종합상황 관리 ▲교통소통과 귀성객 편의 제공 ▲청소·환경관리 ▲물기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의료·방역 대응체계 강화 등 11개 반 210명의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해 분야별 상황에 대응한다. 먼저 재난과 화재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주요 교통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연휴 기간에는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긴급상황에 신속 대응한다. 또한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주요 도로와 혼

잡지역에 교통 대책 마련과 공영주차장 확보, 안내에 나설 계획이다. 청소대책반에서는 생활쓰레기 수거 체계를 정비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물기안정 대책반에서는 가격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유통질서를 지도·점검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위문과 사회복지시설 안전 점검도 병행해 소외 없는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연휴 기간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응급의료기관·당직의료기관·휴일지킴이약국을 지정, 감염병 예방과 방역활동도 강화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정겨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 행정 공백 없이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 순천농협, 별량 벼 건조장 시설 준공

60억 투입...고품질 쌀 생산 기반 강화

순천농협은 “최근 별량면 대곡길 80에 위치한 별량 벼 건조장 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 행사에는 노관규 순천시장, 서동욱·한춘옥 도의원, 장경원 시의원, 주철호 순천시지부장을 비롯해 농업인 조합원 300여명이 참석해 시설을 둘러보고 향후 활용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준공식은 노후화된 벼 건조장을 개보수·증축한 것을 기념하는 자리로, 지역 농업인의 편의 증진과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시설 개선에는 총 60억원이 투입됐으며, 국비 25%, 도비 4%, 시비 9%, 순천농협 자체 사업비 6

2%가 반영됐다. 새 단장을 마친 건조장은 원물 투입구 개선으로 처리 속도를 높였고, 건조 용량 확대와 대기 환경 개선, 하루 24t 처리 능력, 안전사고 예방 효과 등이 기대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시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힘써주는 순천농협에 감사하다”며 “농업인과 함께 지혜를 모아 지역 농업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남규 순천농협 조합장은 “별량 지역 벼 건조장 현대화는 농업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며 “혼잡 해소와 품질 향상, 안전한 작업 환경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양홍렬 기자